

SPECIAL SUNDAY
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 선교주일



영린 가슴, 영린 마음, 영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 선교주일

우리가 드리는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은 미원주민 문화를 존중하고 지킬 신학생들이 그들의 사역을 준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지역 사회를 섬길 신선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교회들에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제게는 두 가지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또 모든 사람이 교역자 자격과정 프로그램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도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 저스틴 윌슨 목사, 박사, 체로키 및 오지브웨 부족

“창조주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의 장점을 아신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저뿐이라고 느껴지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주님, 만약 공동체가 갈라진 나무껍질처럼 부서진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 베타니 프린텡-데이비스, 뉴욕주 투스카로라 부족

“저는 미국의 노동 스케줄에 지배되지 않으면서 원주민 의식을 행하면서 온전하게 북미 원주민으로서 살 수 있고, 환경에도 좋고,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친환경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 마커스 브릭스-클라우드, 마스코케 부족



미원주민 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은, 연합감리교회가 교단적으로 행하는 6개의 특별 헌금의 하나로, 원주민 목회자들과 교회들 및 신학생들을 준비시키고 힘을 실어주는 데 사용되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절반은 우리가 속한 연회와 지역의 사역에 사용되며, 나머지 절반은 전국 단위의 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 사역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 소속 연회 사무실에 연락하여 미원주민선교주일헌금이 지역의 어떤 사역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예를 들면, 서오하이오연회의 \$100,000 보조금은 미원주민 공동체들이 코비드-19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커스 브릭스-클라우드는 자연계와 친밀한 관계성을 실천하는 에코 빌리지를 통해 마스크케(Maskoke) 언어를 적극적으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 미원주민 연합감리교인들은 세계 교회 협의회(WCC)와 협력하여 전 세계의 토착민 영성과 권리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드리는 미원주민선교주일헌금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미원주민 문화를 존중하고 기념할 신학생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지역사회를 섬길 신선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찾고 있는 교회들에 힘을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UMCgiving.org/giveNAMS 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시거나 체크 메모난에 “미원주민선교주일”을 적어 소속된 교회에 헌금해 주세요.